

MBC사건 보도 자료

발신: 한대여위 김 유 미

수신: 여성연대회의

돌어가며

18일 들꽃모임에서는 동아대 이모 학우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화방송의 보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들꽃은 문화방송의 보도 자체가 이 학우에 대한 또 다른 성폭력이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화방송의 사과를 우선으로 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한 각 캠프 별 활동과 더불어 이 사건으로 촉발된 언론 보도의 선정성과 저열한 성의식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동의하였다.

우리가 이 사건의 쟁점으로 추려낸 것은 첫 번째, 문화방송의 보도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성폭력의 일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이다.

이 글은 현명한 대응을 위한 발판으로써 이 사건에 관한 보다 개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다. 그리고 차후 사건의 추이에 관한 보고의 목적이기도 하다.

문제의 보도 내용

:9월 11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내용을 문자뉴스 기록실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인용 앵커 :

택시 운전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한 여대생이 이 사람을 꼭 잡아 달라는 유서를 써 놓고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는 자신이 성폭행한 여대생에게 다시 만나자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산에서 최영태 기자입니다.

최영태 기자 :

어제 새벽 2시 반쯤 경남 김해시 외동 모 아파트 14층에서 19살 이모양이 뛰어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수치심이 꽃다운 나이의 여대생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이 양이 남긴 짝막한 유서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었던 답답한 심정이 배어있습니다. 이양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자살하기 한 시간 전인 새벽 1시 30분 김해시 구산동에서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 공모씨에게 장위면 부곡리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공모씨는 이양에게 다시 만나자며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공모씨 :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아가씨가 드라이브하자 해 갔지 강제로 갈 수는 없잖아요. 택시 기사가요.

최영태 기자 :

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된 공모씨는 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양을 부검해 정액과 DNA 검사 등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 대신 깨끗한 죽음을 택한 이 양의 선택은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김해에서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

최영태 기자와의 인터뷰

: 사건(문화방송 사건)의 일차적인 가해자인 최영태와의 인터뷰는 나우누리 게시판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 목 : MBC 최영태 기자와 직접 통화한 내용!!!

올린이 : kdp3645 (김동필) 97/09/14 08:15 읽음 : 59 관련자료 없음

지난 9월 11일 MBC 9시 뉴스 데스크에 방송되었던 김해의 이모 여대생 성폭행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마산 MBC 최영태 기자의 보도를 보면서 열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다. 최영태 기자의 마지막 멘트에서 보면 성폭행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 것이 정조관념이 부족한 시대에 자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멘트였다. 최영태 기자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지막 멘트로 잡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치스런 삶 대신 죽음을 당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관념이 희박한 요즘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였다.

나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연 최영태 기자가 어떤 마음에서 그러한 멘트를 잡았는지 궁금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마산 MBC방송으로 전화 다이얼을 돌렸다. 수차례에 걸쳐서 돌렸지만 기자라는 직업이 워낙 바쁜 직업이라 쉽사리 통화하기가 힘들었다. 수차례에 걸친 통화 시도끝에 최기자랑 통화를 하였다.

"안녕하세요 최영태 기자님이십니까?"

"네..그렇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아무개 입니다"

"네.."

"지난 11일 방송된 성폭력 자살사건 기사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네..그렇지 않아도 여러 시청자들로 부터 전화 수차례 받았습니다..."

"최영태 기자님은 어떠한 마음에서 그런 멘트가 나왔죠?"

"그 기사는 분명 저의 실수입니다...인정합니다...죄송합니다..."

최영태 기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침체된 목소리였다.

나는 과연 본인이 기사 내용대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다.

"그 기사가 혹은 최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평소 생각하시는 바 입니까?"

"아닙니다...그건 분명 저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영태 기자는 하나하나 얘기를 해 주었다.

"우선 일반 시민들과 이번 사건 보도를 접한 시청자 분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

본의 아니게 저의 실수로 엄청난 기사가 나간것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이다.

나는 이양의 죽음이 한국적 상황속에서 나온 참담한 죽음이라 생각하였다.

사건을 취재한 기자로서도 이양의 죽음에 대해 가슴아프다." 라는 말을 전했다.

"죽음을 부는 이양의 성폭행 자살 사건은 성폭행으로 인한 부끄러운 삶 보다 정조관념이 인식되는 이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다" 라고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최기자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해 많은 부분을 느꼈다고 있다.

"이 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하면 왜 여성들이 자살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한다.

그렇다면 최기자가 왜 그런 경솔하고도 신중하지 못한 멘트를 잡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기자는 이번 사건 취재를 위해 지난 9월 11일 오후 4시경 부터 기사송고전인 8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취재를 하였다고 한다. 워낙에 사회부 기사의 성격이 급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해 충분히 준비된 기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리고 지방방송의 경우 취재기자의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털어놓고 있다. 최기자는 이번 사건의 보도목적은 "성폭력으로 인한 자살을 선택한 이양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고자 함이 목적이였다"고 한다. 그렇기에 "본인은 추후도 여성의 성폭행 자살 사건을 비하하기 위해 취재를 한것은 아니다" 라고 간절히 말하고 있다...

물론 마산 MBC방송 데스크에서 이런 잘못된 멘트에 대한 바로 잡지 못한것도 문제거니와 또한 8시경에 기사를 송고해 주었는데 보도시간 전까지 MBC 본사의 보도국과 편집국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것도 이번 방송사고의 한 원인이다.

최기자는 마산 MBC방송사에 지난 95년도에 입사하여 지금 보도국에 근무를 하고 있다. 나는 전화통화를 통해 최기자가 비록 실수로 그러한 방송 멘트의 기사를 내 보냈지만 그것은 최기자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멘트를 제외한 전체적인 기사의 흐름을 본다면 그 여대생의 죽음을 정조관념으로 비하시키기 위한 기사가 아님을 볼 수 있다.

문화방송의 사건 관련 입장 표명

:문제의 보도가 있는 후 통신공간에서는 다양한 항의가 무수히 쏟아졌다. 문화방송의 시청자 참여 코너를 통한 항의와 플라자란을 통한 의견개진 그리고 항의쪽지보내기, 토론방 개설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 아랫 글은 통신상의 이러한 항의에 대하여 문화방송이 한 첫 번째의 공식 입장이다.

제 목 : 로컬방송에 대한 항의는..

올린이 : mbcb (문화방송) 97/09/13 14:36 읽음 : 5

관련자료 없음

여대생 성추행사건 보도는 마산 문화방송 지방 방송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각 지방 MBC와 서울의 (주)문화방송은 서로 독립된 법인으로 이 게시판을 관리하는 서울 문화방송의 시청자팀이 마산문화방송 보도국에 원칙적으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마산 문화방송에 전화로 의견을 주시는 것이 올바른 의견 개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많은 항의의견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각 지방 방송사별 전화번호는 1번 공지의 전국네트워크 총람기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들꽃의 1차 성명서

: 이 사건과 관련한 1차 성명서는 9월 18일 작성되었다. 이 성명서는 문화방송 측에 발송하였으며, 더불어 통신 공간에서도 게재되었다.

MBC성폭력보도건에 관련된 15개 대학 성명서 지난 9월 11일, 한 여대생의 자살했다는 기사가 방송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그 여대생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9월 10일 저녁, 유서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의 내용에는 너무 힘들다는 말과 함께 가해자를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달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막 2학기를 맞은 1학년 여학생에게 성폭행이라는 것은 너무나 버겁게 다가왔나 봅니다. 저희는 그녀의 끊어진 목숨을 참으로 안타까워 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우리들은 MBC 9시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며 맺은 마지막 멘트를 듣고는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그 여대생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회통념과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MBC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보다 죽음을 택한 *양은 정조관념이 희박해진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멘트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정조관념이 희박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정조관념이 희박하다. 그리고 성폭력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분단위로 강간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은 정조관념을 투철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정조관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살을 해야 한다. 이 보도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통신과 학교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MBC에서는 이 보도와 관련한 책임을 마산MBC로 돌리거나, 사건을 보도한 한 기자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이 아닌 정규뉴스시간에 이런 멘트를 내보낸 책임은 한 개인의 실수였다는 식으로는 무마될 수 없습니다. 방송은 공적인 매체입니다. 게다가 9시 뉴스는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도에 관련하여 ‘살아 있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책임은 MBC 9시 뉴스 프로그램이 져야 합니다. 우리는 MBC ‘9시 뉴스’ 시간에 이 보도와 관련된 사과 방송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9월 24일 수요일까지 사과방송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가능한 물리력을 총동원할 생각입니다. 이 보도로 인권을 침해받은 성폭력피해자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대학교 총여학생회
덕성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동국대학교 성정치 위원회
동덕여자대학교 여성행동위원회
서울대학교 관악여성모임연대
서울여자대학교 여성학회 날개달기
수원대학교 총여학생회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성균관대학교 문과대 여학생회
성균관대학교 정정현 편집위원회
시립대학교 총여학생회
아주대학교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성정치 위원회 THE OTHER

연세대학교 사회대 여학우 모임 BEYOND

연세대학교 성연구모임 등쪽

연세대학교 법대 여학생회

연세대학교 여성자치연합

영남대학교 총여학생회

외국어대학교 왕산 총여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한양대학교 여성위원회

*9월 18일 문화방송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TV속 TV'에서 사과방송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동에 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목표와 입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의 직접적 가해자인 공씨의 처벌에 관한 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동아대 게시판에 상화에 대한 정보를 부탁해 놓았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캠페인 여론작업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문화방송의 사과방송이 성에 차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거대 언론이 자신을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것은 큰 소득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너무 늦게 대응하여 실질적인 힘을 보태어 여론을 몰아가는 역할을 하지 못 한 것이 아쉽다.

이 후 논의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활동이 결정되면, 더욱 보안된 보도자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날 령 한 총 알 통 신-----

성폭력 정책 초안

제목 :

“수치스러운 삶 대신 깨끗한 죽음을 택한 이 양의 선택은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 MBC 마산 방송국의 한 기자

들어가며.....

‘MBC사건’ 또는 ‘택시운전기사 사건’ 등으로 불려지는 성폭력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가부장제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도 오히려 피해자 여성이 죄책감을 느끼고 심지어 자살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성폭력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찰들의 선정성과 판사의 반여성성은 여성들을 모호해주는 역할이 아닌, 여성들에게 또 다시 한 번 고통을 주면서 이 사회 가부장제의 수호자가 되어 버린다. 검사나 판사는 어찌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형사법이나 성폭력 특별법 자체가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대중매체의 시대라 불리는 요즘, 언론이라는 기관은 자살한 피해자가 잘 죽었다는 식의 발언을 당당하게 오피스 뉴스에 실리는 세상이다.

그래도 이 사건은 화제가 되어서 가해자가 미온한 처벌이라도 받게 되지만.....

잠깐!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일어난 성폭력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오는데, 왜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나의 엉덩이에 손을 대질 않나. 종합관을 지칭하던 어느 선배 왈, "우리 여자들 다리 굵게 만드는 종합관이.....어찌구 저찌구" 그렇다면 인문대 여성들은 다 다리가 굵은가? 여학우들의 다리가 굵어지지 않도록, 너무나도 여성들을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종합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에이 모르겠다. 수업이나 들어가자. 수업 중에 여성들에 종합관 직업을 가르쳐 주신다니 (너무나도 상냥하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성들은 시집가야 하니까 너무 마음을 크게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세심한 충고를 해주셨다. 이제 더 이상 신경쓰기 싫은 나는 이따가 저녁에 있을 술자리를 생각하며 즐거워하기로 한다. XX소주방에 나는 약간 늦게 도착했는데, 여자는 나밖에 안온 것이다. "여자다!" 자신의 옆에 강제로 앉게 만드는 어느 선배.....너랑 얼마나 술을 마시고 싶었단느니, 정말 귀엽단느니. 기분나쁘게 머리 쓰달등고 어깨에다가 손을 계속 올려놓고. 같이 밖에 나가자고 한다. 그말을 들은 건너편 남자에들은 뒤집어지게 웃는다.....싫은 내색을 해야하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의 머리를 팍 채워버리는 것 같다.....큰 마음 먹고 다음 날 말을 했는데, 술 마셔서 기억이 하나도 안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지랄이냐 너 그래서 학교 생활 어떻게 할래 등등. 역시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획안 참조)

1. 일상의 성폭력, 성폭력의 일상

- 이에 대학도 자유롭지 못하다. 진보의 공간, 자유의 공간, 낭만의 공간이라는 대학의 규정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사회가 가부장적인 만큼 대학 또한 그러하다.
- 여대생의 삶 일상 그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형성돼 있다는 것 - 일상 속에서

의 성폭력

2. 대학은 정치적인 곳이다!

- 대학내 성폭력은 여성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 대학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데올로기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 대학 내 성폭력은 교육 기관이라는 특성상 존재하는 교수-학생 간 또는 선배/후배 간의 권력 관계와 가부장적 권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소외된 위치와 피억압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3. 피해자 여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 성폭력에 관한 담론을 여성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 반여성적 법률과 주류 정치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 여학생들의 자치권, 성적 자기결정권 쟁취 - 학내 성폭력 자치규약을 제정하자.

공약

1.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 운동을 벌려나간다.

- 학내 성폭력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연세대 모임”을 지원하고 다른 학생회 동아리와 학회 등과 연대 테이블을 만든다.
- 지속적인 선전과 토론회 등을 통해 학우들이 스스로 특히 여학우들이 스스로 자치규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한다.

2. 성폭력 전담 기구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 현재 학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상담소의 실태를 알아보고 학교 당국, 교수와 학생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자치규약 제정과 운영을 논한다.

3. 여성의 몸은 여성 스스로가 지키자!

- 교양선택 과목에 여성들만이 수강하는 호신술 강좌를 개설한다. 성폭력의 사회성, 정신심리적 측면과 여성의 육체적 특성들을 모두 함께 논의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익혀나간다.

4. 여성의 교육권을 지키고 대안적인 여성주의적 교육을 모색해본다.

- 자신의 삶과 학교 수업과 여성주의적 실천들이 하나가 될 있도록, 여성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학내 여성운동 단체들 간의 연대 테이블을 만들고 지원한다.